

중국의 양거 베켄 양집단 - 거대한 면방적 일관공장 증설

중국에서는 석강성 영파시(浙江省 寧波市)에 있는 가장 큰 어패럴메이커의 하나인 양거집단이 각종 봉제소재를 자체 조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텍스타일 생산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품질도 좋고 수주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직물이나 편성지의 생산능력을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면방적에도 진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거대 섬유기업인 베켄집단은 영파시가지에 있던 공장을 광활한 교외의 공업원(工業園)으로 옮기면서 일본을 비롯한 해외기업과의 합판(合辦)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타 지역의 경영이 부실하여 매도하려는 국유(國有)기업을 적극 매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 양거집단 - 제2기 프로젝트에서는 텍스타일 시설의 배증(倍增)과 액체 암모니아 설비 등 신설

양거집단은 신사복, 셔츠, 캐주얼웨어 등을 연간 300만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좋은 품질의 소재를 그 동안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다. 특히 고품질의 소재를 자가(自家)조달하기 위하여 제1기 프로젝트로서 약 30만㎡의 부지에 “아과이 방직성(牙戈爾 紡織城)”을 건설하고 품질이 좋은 면직물과 니트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닛신보 및 이토추 상사와 합판으로 설립한 “영파 아과이 일중방직 인염(日中紡織印染)”은 연간 사염(絲染) 2,000t, 직포 1,500만m, 염색가공 2,500

만m의 생산능력을 갖고 2003년 9월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셔츠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2004년 3월부터 완전 가동하고 있다.

방직성 제2기 프로젝트로는 ①면직물 생산능력의 배가(倍加) ②니트지 생산능력의 배가 ③모제품의 방적·직포·염색가공의 일관공장 신설을 구성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7억 위엔(元)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액체암모니아 가공시설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면사도 방직시설이 가동되는대로 자가생산하도록 할 예정이며 내년 중에는 공동경영자의 선정을 끝낼 예정인데, 일본기업과 합판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2003년의 사업실적은 SARS(新型肺炎)의 영향을 약간 받기는 하였으나 수출이나 부동산사업으로 보충하여, 판매실적은 전년 실적보다도 6억위엔 많은 75억위엔이었으며, 이익은 전년의 5억 8천만위엔보다도 7천만위엔이 많은 6억 5천만위엔으로 되어, 당초의 계획을 그런대로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베켄집단 - 부실 국유기업 적극 매수

베켄집단은 세 개의 섬유관계 공업원을 갖고 있다. “북윤(北倫)공업원”에는 약 70만m²의 부지에 일본의 닛신보 및 이토추상사와의 합판으로 면사를 생산하고 있는 “유과(維科)면방직”, 일본의 “능임견(能任絹)”과의 합판으로 심지(芯地)를 생산하는 “능임견공업”, 일본의 “흥양(興洋)염직” 및 이토추와 합판으로 면모포를 생산하는 “흥양모담(興洋毛淡)” 등의 공장이 들어 있으며, 능임견공업은 현재 시설을 배로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진해(鎭海)공업원”은 약 35만m²의 부지 안에 미국 아메리칸 에포드사와의

합판으로 연생산량이 1만 3천t 규모로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재봉사공장을 설립하였다.

최근 “자계시(慈溪市)”에 건설하기 시작한 “항주만(杭州灣)공업원”은 약 140만m²의 정지작업을 추진중인데, 2008년에 완성될 예정인 항주만대교(大橋)의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유리하다고 한다.

앞으로 “북윤공업원”에서는 카시트용 경편지와 고급면직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진해공업원”에서는 셀룰로스섬유의 생산과 염색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주만공업원”에서는 인테리어(interior)용 포와 세번수 면사, 하이테크 섬유를 생산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영파 이외의 지역에도 생산거점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화북(華北), 화동(華東), 화중(華中)의 3개 지역에서 경영난에 빠진 국유기업을 매수할 뜻을 밝혔다. 원래 베켄집단은 영파시 국유 섬유기업의 집합체로서 출발하여, 경영개혁에 성공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최초의 케이스로 국유 면방직기업과 매수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